

영화홍보텍스트 번역에서 장애인의 타자화*

신나안 · 정병언**

(부산대)

1. 서론

영화홍보텍스트의 번역은 목표 언어 문화권의 관객을 끌기 위해 그들의 전통과 이데올로기는 물론 시장성과 미디어 시스템을 고려하여 원본 텍스트를 재창조하는 마케팅적 재현 작업이다. 따라서 영화의 포스터와 줄거리와 같은 영화홍보텍스트의 번역문은 목표 문화권에 맞게끔 원문이 내포하고 있는 욕망, 공포, 동경과 같은 집단무의식을 번역문에서 재현해내야 한다. 더불어 마케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화의 시장성이나 특정 이슈에 대해 그 사회 구성원이 취하는 태도 또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국, 번역된 영화홍보텍스트는 단순한 원문의 텍스트적 재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이데올로기적 재현이다. 따라서 이 속에는 특정한 담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때 담론은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 1저자: 신나안, 교신저자: 정병언

홍보 텍스트 속 재현된 특정 인물이나 대상을 실제나 원문과는 다르게 재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민이나 부정,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경제적, 성적, 신체적 약자가 텍스트에 등장할 때 이들의 이미지는 더욱더 왜곡된다. 이러한 약자들은 미디어 속에서 주변화되거나 정형화되어 그려져 왔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장애인은 다른 사회적 약자 집단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약자로서 (Oliver 1991)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적 결핍을 가지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장애 관련 연구들은 미디어 속 왜곡된 장애인의 재현 방식에 대해 지적해오고 있다(Whittington-Walsh 2002; Poore 2003). 그들은 동정받는 약자, 타인의 교화를 돕는 보조적 인물, 약당, 치료를 통해 정상성을 회복해야 하는 인물로 그려질 뿐이다(Worrell 2018: 97). 이렇듯, 비장애인 중심적 관점(ableism)¹⁾에서 틀을 짓고 분류하는 재현방식은 장애인을 극히 제한된 유형으로만 보게 만들고 부정적인 인물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지배담론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배담론의 개입으로 인한 장애인의 왜곡된 재현과 배제의 문제를 번역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연구는 국내외의 모두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해외의 경우 번역보다는 미디어 속 장애인의 등장 빈도나 재현양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다. 장과 할러(Zhang and Haller 2013)는 장애인들이 미디어 속 그들의 재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애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미디어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한다. 특히 할러(Haller 2010)는 미디어와 장애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 그중 하나는 뉴스가 장애인을 어떻게 프레임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프레임 방식을 유형화한 것이다. 콜로터치키나 외(Kolotouchkina et al. 2021)는 패럴림픽에 참여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기 및 그 결과를 전달하는 스페인 뉴스매체의 보도 방식을 조사한다. 이 외에도 TV광고를 공익 광고, 소비 광고, 지원(후원) 광고의 유형별로 나누어 장애인들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가 있다(Dogutas 2021). 국내의 경우, 번역 연구로서는 배리어프리와 같은 장애인

1) 비장애 중심주의 혹은 장애차별주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차별 및 배제 시스템”이다(Rauscher and McClintock 1996: 198).

을 위한 영화의 화면해설 연구가 있다(이상빈 2020).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번역이 아닌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장애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정형화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강주현 임영호 2011; 이선자 2007; 허숙민 외 2012) 장애인의 재현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고, 영화홍보텍스트의 번역양상과 관련하여 이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장애 관련 영화의 홍보 텍스트는 많은 관객을 모으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소수집단인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 관련 영화홍보텍스트의 번역 과정은 비장애인 중심의 편향된 시선과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서를 반영하여 텍스트를 재생산해낸다. 따라서, 홍보 텍스트의 번역 연구를 통해서 ‘비장애인 중심적 시선(ableist gaze)’이 어떻게 장애인을 재현해내고 이들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포스터와 줄거리를 다시쓰기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푸코(Foucault)가 말하는 담론의 배제적 특성에 기반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푸코는 다른 집단을 통제하는 과정으로서 배제적 전략이 담론에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배제적 절차에는 ‘금지,’ ‘분할과 배척,’ ‘진리의 의지’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 담론이 ‘통제되고,’ ‘선별되고,’ ‘조직되고,’ ‘재분배’되면서 배제가 이루어진다(1970: 52).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 담론의 배제적 절차는 영화홍보텍스트의 번역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을 재현하여 타자화시킨다.

장애인의 배제와 타자화 과정의 첫 번째로 ‘금지’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 대한 금기, 어떤 상황에서의 관례, 말하는 주체에게 배타적 권리”(1970: 52)를 뜻한다. 따라서 영화홍보텍스트 속 장애인의 성이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번역될 때 장애 인물의 목소리가 삭제되거나 왜곡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장애와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누구의 목소리로 전달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두 번째 ‘분할과 배척’은 특정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권리를 뺏고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1970: 53). 푸코는 그의 저서 『광기의 역사』에서도 이성과 광인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광인을 배척하기 시작했음을 언급한다(1970: 53). 즉, 분리는 특정 대상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다. 영화 줄거리나 포스터의 번역 과정에서는 이러한 ‘분할과 배척’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다른 비장애인 인물과 다르게 특정 지어 묘사하는지를 중심으로 번역 전략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진리에의 의지’는 특정 사회나 시대에 이미 참이라고 결정지어진 참된 담론이 가진 자의성, 폭력성, 강제성을 뜻한다. 진리라고 여겨진 담론은 다양한 다른 담론의 가능성을 막는데 이러한 배타성이 곧 배제를 야기한다(1970: 54-55). 이는 영화홍보텍스트의 번역 과정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신체에 대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녀온 고정된 인식이 장애인의 몸과 정체성을 비정상적으로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세 가지 배제의 방식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이미지를 다시쓰기 함으로써 결국 장애인 은 타자화될 수밖에 없다.

이때 프레이밍(framing) 또한 푸코가 말하는 배제의 질차와 다름없이 장애인을 타자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프레이밍은 말 그대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틀을 짓는 행위로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에 따라 관객의 해석이 달라진다(Entman 1993). 홍보 텍스트 또한 장애인과 관련된 특정 부분의 의미를 선택적으로 전환시켜 관객이 이를 자연스럽게 의도된 방식대로 보도록 번역된다. 이렇듯 프레이밍이 장애인에 대한 특정 시선을 형성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레이밍의 모호성,’ ‘선택적 전유,’ ‘이름짓기’ 등의 구체적인 실현 요소들은 번역 텍스트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을 다루는 영어권 영화의 포스터와 줄거리가 국내에서 번역될 때 장애와 장애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프레이밍 하여 배제하는지 그 타자화의 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IRIS Center³⁾가 분류하고 제시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2001년에서 2021년까지 국내에 상영된 영어권 영화 중 장애⁴⁾를

- 2) 베이커는 서사적 프레이밍 장치로 시공간적 프레이밍, 선택적 전유, 이름짓기, 참여자의 재배치를 그 예로 든다(Baker 2006: 107-132).
- 3) IRIS 센터는 장애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미국의 특수교육프로그램국(OESP)으로부터 펀드를 지원받아 Vanderbilt 대학에 설립된 센터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 이용된 영화목록은 IRIS 센터가 제공하는 장애 관련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이다.
- 4) IRIS 센터의 영화 데이터베이스는 장애 관련 영화의 목록을 다음과 같은 장애의 유

가진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15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들의 원문 포스터와 한글 번역본 포스터의 카피 및 구글의 영문과 국문 줄거리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때, 영화포스터에서 수상내역이나 감독명 등 영화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카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구글이 제공하는 줄거리의 경우, 접속 국가와 언어에 따라서 검색 내용을 현지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영화 줄거리의 영문과 국문은 그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배제의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특히 푸코의 담론의 배제적 절차와 프레임 이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이들의 이론을 전유하여 장애와 장애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1) 비장애인 중심적 재현 2) 장애의 비장애적 재현 3) 낙인에 의한 장애의 재현이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살펴봄으로써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타자화되고 소외되는지를 밝힌다.

2. 비장애인 중심적 프레임과 장애인의 대상화

원문의 줄거리와 영화포스터 카피는 대부분 장애 인물의 장애나 특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반면, 번역 텍스트 속 장애 인물은 모두 장애를 이겨내고 울림을 주는 인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상업영화의 홍보 텍스트 속 장애인의 이미지는 ‘비장애인 중심적 시선’에 따라 프레임되어 장애 인물과 비장애 인물 그리고 관객의 관계를 주체와 객체의 구도로써 명확히 보여준다. 장애 인물은 감동을 주는 대상 혹은 시선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비장애 인물이나 관객은 그 시선의 주체가 된다. 이렇듯 장애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영화가 누구의 시선으로 등장인물을 그려내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원문이 가진 해석의 모호성을 없앤다.

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장애 유형: 자폐증, 청각장애, 감정/행동장애, 건강장애, 지적/발달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신체장애.

2.1 감동 포르노와 장애인의 배제

장애인의 유형을 정형화하는 데 있어서 장애 인물이 자신이 가진 장애를 극복하는가, 극복하지 못하는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은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장애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장애인은 악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인의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로 작동한다. <예시1>과 <예시2>의 <잠수종과 나비> 그리고 <레이>의 번역 텍스트에서 장애인인 혼자 힘으로 혹은 다른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극복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잠수종과 나비>에서는 장애 인물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시도를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면서 관객들에게 영화를 통해 감동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시1>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잠수종과 나비)

(1) 줄거리

ST: A true story of Elle editor Jean-Dominique Bauby who suffers a stroke and has to live with a paralyzed body; the only way he can communicate is with his left eye.

TT: 유명 잡지 ‘엘르’ 편집장으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즐기던 장 도미니크 보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신체 중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자유롭던 몸짓이 한순간 잠수종에 갇힌 남자 하지만 기억과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데 . . . 침묵 속에서 세상을 썩 내려간 남자의 아름다운 실화가 시작된다!

(2) 포스터 카피

ST: Based on a remarkable true story

TT: 한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남자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영화! 몸이 감옥이 되어버린 남자, 침묵으로 세상을 쓰다!

ST의 줄거리는 ‘Jean-Dominique Bauby who suffers a stroke and has to live with a paralyzed body’와 같이 주인공의 전신마비라는 그의 장애 증세와 그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한쪽 눈에 대해서 간단히 묘사한다. 카피에서는 이를 ‘a remarkable true story(위대한 실화)’ 정도로 표현한다. 여기서 ‘remarkable’은 감동을 주기 위해 부풀린대거나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최고, 최대, 최

신과 같은 광고에서 의례적으로 쓰이는 강조 문구의 한 유형이다. 반면에 TT는 감동의 강도를 높인다. 줄거리의 앞부분에서는 그의 장애를 언급하고 뒷부분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다,’ ‘침묵 속에서 세상을 썬 내려간 남자,’ ‘아름다운 실화가 시작된다’로 번역한다. 포스터 카피에서도 ‘한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남자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영화’와 같이 장애와 감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장애 인물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관객들이 장애 극복 스토리를 통해 감동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서 나타낸다.

다음 <예시2>의 영화 <레이>는 장애와 시련을 딛고 일어난 주인공을 영웅적 인물로 더욱 강화해 번역하고 있다.

<예시2> <Ray>(레이)

(1) 줄거리

ST: Seven-year-old Ray goes blind after his brother's tragic death. His mother inspires him to rise above his impairment and make a place for himself, while a piano gives a new direction to his life.

TT: [. . .] 흑인 소년 레이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7살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다. [. . .] 타고난 청각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발판으로 흑인 장애인이 받아야만 했던 모든 편견을 물리치고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한 레이. [. . .] 마침내 . . . 흑인으로, 그것도 시각장애인으로 당당히 세상의 편견과 맞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레이.

(2) 포스터 카피

ST: The extraordinary life story of Ray Charles. A man who fought harder and went farther than anyone thought possible.

TT: 나는 음악을 통해 모든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레이 찰스’의 감동 실화

ST의 줄거리는 장애를 입게 된 레이가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그 외에 레이가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에 TT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의 삶과 장애를 강조하여 비극적으로 묘사한다. ST에는 없는 ‘흑인’이라는 정체성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흑인 장애인이 받아야만 했던 모든 편견’과 ‘흑인으로

그것도 시각 장애인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레이'의 문구로 장애인과 흑인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그가 겪었을 어려움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이중적 차별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주인공의 장애 극복 과정을 극적으로 만들어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감동 실화'라는 포스터 카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화가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약속하는 등 영화의 내용을 장애 극복의 감동 서사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동 스토리'나 '감동 실화'와 같은 표현은 장애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 영화 포스터나 줄거리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동의 소재가 <예시1>과 <예시2>에서는 감동 포르노(*inspirational porn*)⁵⁾의 서사로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동 포르노란 장애인이 역경을 극복하고 해내는 것을 보고서 비장애인들이 감동과 희열을 느끼는 것으로 장애인들과 그들의 장애는 비장애인들의 감정적, 정서적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감동 서사는 비장애인의 신체나 정신을 정상으로 보고, 장애인을 정상성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며, 비장애인을 장애인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비장애인 중심적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힘을 가진 시선의 주체가 되고 장애인은 시선의 객체로 전락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비장애인 중심적 시선'에 의해 장애 인물은 비장애인의 삶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인물로 대상화될 뿐이다.

2.2 서사 장치로서의 장애 인물

앞서 언급한 예시들처럼 장애 인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장애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비장애 인물의 삶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아래 <예시3>의 영화 <솔로리스트> 또한 TT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는 내용을 강조한다.

5) 감동 포르노는 호주 장애인 활동가인 스텔라 영(*Stella Young*)에 의해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각종 매체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인을 보여주며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와 같은 고무적인 감정과 감동을 유발하는 장애인의 대상화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예시3> <The Soloist>(솔로리스트)

(1) 줄거리

ST: A journalist befriends a homeless mentally ill, street musician who possesses extraordinary talent. Inspired by his life story, he writes an acclaimed series of articles.

TT: 삶에 지친 LA 타임즈 기자와 삶의 길을 잃어버린 천재 음악가. 서로를 도우며 키워나가는 우정과 희망의 감동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매일 특종을 쫓으며 가족도 친구도 멀어지면서 삶에 지쳐가던 LA 타임즈 기자 로페즈는 어느 날 우연히 길 한복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나다니엘과 마주친다. [...] 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사로 연재하며 로페즈는 그를 점점 알게 되고, 그를 도와 재능을 다시 찾아주려 하지만 나다니엘은 그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2) 포스터 카피

ST: Life has a mind of its own/ Based on a true story

TT: 올가을, 당신의 영혼을 연주할 단 하나의 감동 실화

ST의 줄거리는 장애인에게 자극을 받아 기사를 써 내려가는 비장애인에 대한 내용만을 전달할 뿐 장애인을 돕는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TT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를 도우며 키워나가는 우정과 희망의 감동 드라마가 시작됩니다!’와 같이 두 인물이 정상적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 돕는다는 영화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것이 감동을 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로 재현된다. 포스터 카피의 경우 ST는 ‘Life has a mind of its own(인생은 그것만의 계획이 있다)’이지만 TT는 ‘당신의 영혼을 연주할 단 하나의 감동 실화’라는 카피를 추가하여 <예시1>, <예시2>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습이 감동을 준다는 감동 서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래 <예시4>의 영화 <돈위리>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극복이 관객의 정서적 순화를 돕는 내용으로 강조되어 번역되는 사례이다.

<예시4> <Don't Worry: He Won't Get Far on Foot>(돈위리)

(1) 줄거리

ST: After nearly dying in a car accident, the last thing Oregon slacker John Callahan intends to do is give up alcohol. Encouraged by his

girlfriend and a charismatic sponsor, Callahan reluctantly enters a treatment program and discovers that he has a knack for drawing.

The budding artist soon finds himself with a new lease on life when his edgy and irreverent newspaper cartoons gain a national and devoted following.

TT: 알코올 중독에 전신마비 신세였지만 절망하지 않은 남자 ‘존’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유쾌한 인생 영화

(2) 포스터 카피

ST: 없음

TT: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예요”

ST의 줄거리에서는 ‘Encouraged by his girlfriend and a charismatic sponsor, Callahan reluctantly enters a treatment program and discovers that he has a knack for drawing’와 같이 장애를 입게 된 주인공이 여자친구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그림에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TT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삭제되고 ‘알코올 중독에 전신마비 신세였지만 절망하지 않은 존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유쾌한 인생 영화’라는 카피를 추가하여 관객들에게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 즉 교화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장치로서 장애인의 시련과 극복을 이용하고 있다. 포스터 카피인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예요’에서 등장하는 ‘당신’은 장애인인 존을 향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관객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존을 지칭한다면 존의 장애와 그 극복을 대단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관객을 지칭한다면 관객을 고무시키고자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 던지는 말인지와 상관없이 TT는 장애 인물이 전달하는 감동을 소재 삼아 관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시3>에서는 천재 장애인인 나다니엘이 비장애인 로페즈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예시4>에서는 장애인 존이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치유를 돕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서사보조장치(narrative prosthesis)’로 기능하게 된다. ‘서사보조장치’는 장애 인물이 다른 비장애 인물의 정상성 또는 규범성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 인물로 기능하며 스토리 전개에서 ‘소모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Mitchell & Snyder 2011, 우충완 2019: 90 재인용). 즉 TT에

서 장애인은 주체가 되기보다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며, 교화적 의미를 주는 보조적 인물로 소모된다.

2장에서 살펴본 번역된 줄거리와 카피들은 모두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장애 인물의 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정상적(abnormal) 신체를 가진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해서 신체적 정상성(normality)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비장애인 중심적 시선’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프레임되어 있다. 번역 텍스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정상성이라는 진리는 푸코가 말하는 ‘진리에의 의지’가 가지는 배제적 기능과 연결된다. 푸코는 ‘진리에의 의지’를 통해 참과 거짓을 대립시키고 하나의 진실만을 보게 하여 결국은 다른 것을 배제시켜버리는 주류 담론이 가진 권력과 그 배타성에 주목한다(1970: 54-55). 결국 비장애인들이 믿는 정상적인 신체에 대한 진리가 이에 위배되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담론으로서 번역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인을 보는 다른 시각은 제시되지 못하고 장애 인물은 비장애인에게 감동을 주는 대상으로만 소비되거나 혹은 서사를 보조하는 인물로만 강조되어 배제되고 만다.

3. 장애의 선별적 비장애화

장애 인물과 같이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상업영화의 홍보물들은 관객들이 가질 수 있는 이질감과 반감을 우려하여 영화에 나오는 특정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살리거나 삭제하는 ‘선택적 진유’의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번역문에서는 장애의 요소를 삭제하여 장애인을 일반인처럼 재현하고, 그들의 성적 욕구 또한 삭제하거나 비틀어 번역하여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희석시킨다. 그리하여 장애와 관련된 영화의 홍보 텍스트는 영화가 장애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장애와 관련된 요소를 삭제하여 관객들이 일반적인 상업영화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원문 속 장애를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 장애인이 말하기 힘들어하는 내면의 욕구에 대한 그들만의 이야기는 금지된다.

3.1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다시쓰기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이슈 중 특히 장애인의 성에 관한 담론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애인의 성과 관련한 담론 형성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어 영화포스터와 줄거리에서도 선별적으로 삭제되는 번역 과정을 거친다. 아래 <예시5>의 <컴 애즈 유 아>는 영화 속 장애 인물의 성에 관한 요소를 삭제하여 성에 관한 담론이 금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⁶⁾

<예시5> <Come As You Are>(컴 애즈 유 아)

(1) 줄거리

ST: A travelling nurse takes three disabled men on a road trip to Montreal so they can lose their virginity at a brothel.

TT: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스코티,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맷, 앞을 보지 못하는 모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병원만을 오가는 일상이 답답하기만 하다. 스코티는 일생일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맷, 모와 함께 생애 첫 여행이라는 인생 최대의 일탈을 하고 마는데 . . . 보호나 허락은 필요 없어! 막무가내 코믹 로드 트립이 시작됐다!

(2) 포스터 카피

ST: Everyone has needs

TT: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친구들 로드 트립을 떠나다

ST의 줄거리는 ‘they can lose their virginity at a brothel’과 같이 그들이 매춘하기 위해 떠난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TT에서는 이 요소를 모두 삭제하고 ‘막무가내 코믹 로드 트립이 시작됐다!’와 같이 코믹하게 표현한다. ST의 포스터 카피인 ‘Everyone has needs(누구에게나 욕망은 있다)’는 TT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친구들 로드 트립을 떠나다’로 번역되어 은유적으로 그들의 여행이 성적인 것과 연관됨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혹은 반대로 매춘이라는 그들의 여행 목적과는 별개로 그들이 원하는 진실한 사랑이나 관심에 대한 외침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주

6)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포스터 이미지에서도 장애인의 성적 요소가 삭제되었다. ST는 매춘업소의 여성 이미지를 크게 배치하지만, TT에서는 이를 완전히 삭제하고 파스텔톤의 만화처럼 이미지를 재현하여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어지지 않는 한 관객들은 이것을 일반적 사랑으로 생각할 뿐 이 문구가 외면받는 자신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외침이거나 매춘을 위한 여행을 뜻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번역본 텍스트에서 장애인의 성적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 조심스럽게 표현되고 삭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성적 욕구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이를 채우지 못하고 결핍되어 있다(Barnes 1992)는 왜곡된 인식을 우려해서 일 수 있다. 장애인의 성에 대한 문제는 금기시되어 소수에 의해서만 공론화 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장애인의 성적 욕망과 관련된 내용은 자칫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에 대한 담화에서도 제외되고 만다.

아래 <예시6>의 <세션: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의 경우도 장애인의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예시5>의 <컴 애즈 유아>가 완전히 성적 요소를 삭제해서 번역한다면 이는 그대로 드러내어 번역하는 사례이다.

<예시6> <The Sessions>(세션: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

(1) 줄거리

ST: Mark, who is almost forty, lives in an iron lung. He wishes to get rid of his virgin tag and seeks out a professional sex surrogate. He comes across Cheryl, a married woman with kids and a mortgage.

TT: “신부님 . . . 섹스하고 싶어요. 이건 죄일까요?” 침대 위에서 그가 해 보지 못한 단 한 가지! 6단계 특별한 세션이 시작된다! 행동 범위 90도 오로지 얼굴 근육만 자유로운 저널리스트이자 시인인 38살 싱글남 마크 오브라이언.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침대 위에서 그가 해 보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총각 딱지를 떼는 것! 급기야 신부를 찾아가 “섹스를 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바람은 섹스 테라피스트 칠리 코헨 그린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 . .

(2) 포스터 카피

ST: Based on the triumphant true story

TT: 아름다운 남자의 유쾌한 감동 실화/ “신부님 . . . 하고 싶은 게 죄가 되나요?”/ 유쾌한 감동이 침대를 타고 찾아온다!

줄거리의 경우 ST와 TT 모두 장애인의 성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ST에서

는 장애인의 성적 욕구에 대해 3인칭의 관점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TT에서는 이를 신부님과 장애인의 대화처럼 구성하였다. 먼저, ST의 경우 ‘He wishes to get rid of his virgin tag and seeks out a professional sex surrogate’와 같이 그가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해서 전문적인 도우미를 찾고 있음을 전달한다. 그리고 이는 TT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신부님 . . . 섹스하고 싶어요. 이건 죄일까요?’ 급기야 신부를 찾아가 ‘섹스를 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와 같이 장애인과 신부님과의 대화인 것처럼 장애인의 성에 대한 고백이 각색되었다. 그리고 TT의 포스터 카피에서도 ‘유쾌한 감동이 침대를 타고 찾아온다!’와 같이 은유적으로 성과 관련된 내용을 영화가 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알린다.

ST와 TT 둘 다 장애인의 성적 욕구에 관한 내용을 담지만, 얼핏 보기에 TT에서 더욱 장애인이 성과 관련된 이슈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TT의 장애 인물과 신부님과의 대화 부분은 장애 인물을 담론 주체의 자리에서 밀어낸다. 이들의 대화는 고해성사를 연상시키는데 이 고해성사는 금기시된 것을 사죄받기 위한 것으로, 고백하는 자와 고백받는 자의 수직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⁷⁾ 따라서 고백을 듣는 신부님은 강한 권력을 가진 자인 반면에, 고백을 하는 장애인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욕구를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는 힘없는 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해성사의 표현 방식은 장애인의 성적 욕망과 같이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가 고백과 면죄의 방식을 거쳐 드러난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즉, 성이라는 매우 인간의 내밀한 욕망이 개인의 층위에서 충족되지 못하므로 이를 누군가에게 밖으로 드러내어야만 하는 장애인의 고충이 여실히 드러난다. TT 속 장애 인물의 질문인 “이건 죄일까요?”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얼마나 장애인의 성이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이슈로 금기시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3.2 장애인의 장애 요소 삭제

영화포스터와 줄거리의 번역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이로 인한 문제들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는 빈번히 일어난다. 그리하여 그

7) 푸코는 『성의 역사』를 통해서 성에 대한 고백과 속죄의 고해성사가 고백을 듣는자인 종교의 권력을 나타내고 동시에 강화하는 장치였음을 언급한다.

들은 마치 어떤 장애도, 생활에 불편함도 없는 비장애인처럼 재현되고 결과적으로 영화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이야기로 탈바꿈되어 관객에게 전달된다. 다음의 <예시7>과 <예시8>은 장애인의 장애를 삭제하여 나타내지 않는 사례이다.

<예시7> <Please Stand By>(스탠바이, 웬디)

(1) 줄거리

ST: Wendy sees things differently: she's fiercely independent, with a brilliant mind and a mischievous sense of hilarity. Wendy also has autism. [. . .] Wendy comes of age and escapes from her care home on the road trip of a lifetime to deliver her 500-page script to a screenwriting competition.

TT: 우리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웬디. [. . .] 웬디를 따라 LA여행 모두 함께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웬디의 일탈로 들어오세요 ~ 행복한 소확행을 맞보게 될 거예요.

(2) 포스터 카피

ST: Boldly go

TT: 없음

ST의 줄거리에서는 주인공이 관객과는 다른 장애 인물임을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Wendy sees things differently: she’s fiercely independent, with a brilliant mind and a mischievous sense of hilarity(웬디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똑똑하며 유쾌한 장난꾸러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Wendy also has autism(그녀는 자폐증이 있다)’과 같은 내용을 넣어 주인공이 자폐가 있는 장애인임을 분명하게 알린다. 하지만 TT에서는 그 어디에도 장애와 관련한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처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웬디,’ ‘웬디를 따라 LA여행 모두 함께 해보실래요’처럼 매우 평범한 인물로 장애인을 묘사하고 일탈을 시도하는 여자 주인공의 로드 무비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뿐이다.

이러한 장애 요소의 삭제는 다음 <예시8>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예시8> <The Peanut Butter Falcon>(피넛 버터 팔콘)

(1) 줄거리

ST: A man with down syndrome runs away from a residential nursing home to pursue his dream of becoming a wrestler. Later, he meets with an outlaw who becomes his friend and coach.

TT: 레슬러가 되고 싶은 잭은 보호소를 탈출해 과거로부터 도망쳐 나온 어부 타일러의 배에 숨어들게 된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지만 타일러는 레슬러 ‘피넛 버터 팔콘’이 되고 싶은 잭을 동생처럼 보살피며 레슬링 학교가 있는 ‘에이든’으로 향한다. 이 여정에 잭을 찾아 나선 보호소 직원 엘리너가 합류하고 거리에서 잠을 자고 뗏목으로 강을 건너는 거친 여행이지만, 셋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희망을 피워간다. 하지만 타일러가 도망쳐온 과거는 다시 그들의 앞을 막아서고 마는데

...

(2) 포스터 카피

ST: 없음

TT: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을 가져다 줄 영화! 삶의 끝에서 만난
기적/ Hope & Dream”

ST의 줄거리에서는 ‘A man with down syndrome runs away from a residential nursing home to pursue his dream of becoming a wrestler(레슬러로서의 꿈을 위해 보호소를 탈출한 다운증후군 남자)’와 같이 주인공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다. 하지만 TT에서는 ‘레슬러가 되고 싶은 잭은 보호소를 탈출해’ 정도로 언급할 뿐 그가 장애인이거나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은 알기 힘들다. 포스터 카피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져다줄 영화,’ ‘Hope & Dream’과 같이 감동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여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예시7>과 <예시8>과 같이 번역된 텍스트에서 장애 요소를 삭제하는 것은 <예시5>와 <예시6>에서 성에 대한 요소를 삭제하거나 비틀어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로 보이게끔 하여 관객을 끌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푸코는 ‘금지’를 특정 집단으로 하여금 어떠한 대상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빼앗고 힘을 가진 자만이 담론을 구성하는 발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담론의 통제 요소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성과 정치의 영역에

서 빈번히 일어나는 금지와 배제의 문제를 예로 든다(1970: 52). 살펴본 번역 텍스트에서도 장애인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야 할 성과 장애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고 배제된다. 따라서 장애 인물들은 아감벤(Agamben)의 용어로 말하자면 분명 존재하지만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호모사케르(homo sacer)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과 신체에 대해 제대로 된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포함적 배제’(inclusive exclusion)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장애인은 성적욕구가 없거나 혹은 과잉이라는 장애인의 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비롯해 장애인의 성과 신체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비극 혹은 함께 나누기에 민감한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번역 텍스트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는 금지되고 존재 또한 배척당한다.

4. 이름짓기와 장애 이미지의 정형화

장애를 다루는 영화의 줄거리나 포스터가 번역되면서 장애인이나 장애를 표현하는 용어들은 목표 문화에서 굳어져 익숙하게 쓰이는 표현으로 새롭게 이름 붙여(labeling)진다. 원문에 없는 수식어구를 첨가하여 인물을 새롭게 명명하거나 장애의 명칭을 원문과 달리 번역함으로써 특정 방향으로 관객들이 인물을 바라보도록 서사를 전환한다. 그리고 그들을 지칭하는 이름과 수식어구들은 관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원문에서 제공하는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기회는 없어지고 번역 텍스트 속 장애 인물은 흔히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정형화된 인물로만 재현되어 관객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킨다.

4.1 장애 명칭 번역과 장애인 비하

장애와 관련된 영화의 홍보 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무엇보다도 장애 인물이 겪고 있는 장애의 명칭을 번역하는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예시들에서는 ST의 오류를 TT에서도 그대로 따라가거나 혹은 장애를 질병처럼 표현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래 <예시9>는 장애

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장애의 명칭을 번역한 사례이다.

<예시9> <Hollywood Ending>(헐리우드 엔딩)⁸⁾

(1) 줄거리

ST: [. . .] But when he arrives on the set, he develops a case of psychosomatic blindness.

TT: [. . .] 진짜로 눈이 멀어버린 것!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심리적 장님 상태’라고 진단하는데 뽀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다.
[. . .] 눈 감고 찍었나 싶은 영화는 많지만 진짜 장님이 찍는 영화는 여기 단 한 편.

ST의 줄거리에서는 등장인물이 겪는 장애의 명칭을 ‘psychosomatic blindness (심신 시각장애)’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TT에서는 ‘심리적 장님 상태,’ ‘진짜 장님’과 같이 번역하여 ‘장님’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사전에 따르면, ‘장님’은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장님’과 같은 명칭은 ‘눈뜬 장님’이나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관습적인 표현처럼 오랫동안 무심코 쓰여 온 단어로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나 그들의 신체적 한계와 같은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한다.⁹⁾

<예시9>의 ‘장님’은 사전적으로 비하의 표현임이 명시된 용어이지만 다음 <예시10>의 번역사례는 사전적으로는 비하의 뜻이 없으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덧붙여진 장애의 명칭을 사용한 예이다.

<예시10> <The King’s Speech>(킹스 스피치)

(1) 줄거리

ST: King George VI tries to overcome his stammering problem with the help of speech therapist Lionel Logue and makes himself worthy

8) ST와 TT의 포스터 모두 이미지가 주된 요소이고 영화 내용과 관련된 포스터 카피는 없다.

9)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김금녀 외 2011: 55)에 따르면 장님을 비롯한 소경, 애꾸, 봉사 등의 용어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장애인으로 고쳐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enough to lead his country through World War II.

TT: 연합군의 비밀무기는 말더듬이 영국 왕?! 세상을 감동시킨 국왕의 콧
플렉스 도전이 시작된다!

(2) 포스터 카피

ST: 없음

TT: 말더듬이 왕 . . . 세상을 감동시킬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다! 2011년
3월, 그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ST의 줄거리에서는 ‘stammering problem(말 더듬는 문제)’으로 표현한 것을 TT의 줄거리와 포스터 카피에서는 둘 다 ‘말더듬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말더듬이 영국 왕,’ ‘말더듬이 왕’과 같이 장애의 명칭으로 인물을 수식하여 장애를 부각시킨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말더듬이’는 상대를 낮추어 부르는 비하의 뜻이 없는 표현이다.¹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김금녀 외 2011: 55)에서는 말더듬이를 비롯하여 병어리, 귀머거리 등의 표현을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한다. 즉, 이는 사전적 뜻이 소수자의 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로¹¹⁾ <예시 9>의 ‘장님’이라는 표현처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한다.

다음 <예시11>의 <뮤직 위딘>은 장애를 질병처럼 번역한 사례를 보여준다.

<예시11> <Music Within>(뮤직 위딘)

(1) 줄거리

ST: [. . .] During his service, Richard loses nearly all of his hearing.
Joining a new circle of friends, including a man with cerebral palsy
and an alcoholic war veteran.

TT: [. . .] 자신의 청력 장애를 숨기고 사람들의 입술을 읽으며 살게 되고,
어느 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큐 180의 천재 아트를 만나게 된다.

(2) 포스터 카피

ST: Experience a movie that will make you believe anyone can change

10) 국립국어원은 ‘말더듬이’를 단순히 “말을 더듬는 사람”으로 표기하고 있다.

11) 비슷한 예로 황석희 영화번역가는 ‘농아’가 사전적으로 비하의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막에 썼으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 DVD 버전에는 ‘농아인’으로 수정한 일례를 소개했다. <<http://drugsub.net/archives/17158>>

the world.

TT: “그들은 내 삶을 변화 시켰으며 나는 그들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다.”/ 장애인 권익을 위해 살아온 ‘리처드 피멘틀’의 감동 실화

ST의 줄거리에서는 ‘a man with cerebral palsy’로 뇌성마비 장애인을 표현한 것을 TT에서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으로 번역했다.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를 앓다’처럼 질병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질병처럼 장애를 표현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극복의 의지가 없는 인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기 때문이다(김금녀 외 2011: 43-46). 결국, 이러한 표현은 장애와 장애인에 부과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여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아래 <예시12>는 장애와 질병을 자극적인 표현으로 번역한 사례이다.

<예시12> <The Fault in Our Stars>(안녕, 헤이즐)

(1) 줄거리

ST: Two cancer-afflicted teenagers Hazel and Augustus meet at a cancer support group.

TT: 둘이 합쳐 폐는 1.5개, 다리는 3개 호흡기조차 사랑스러운 ‘헤이즐’, 걸음걸이조차 매력적인 ‘어거스터스’ 산소통을 캐리어처럼 끌고 호흡기를 생명줄처럼 차고 있는 헤이즐.

(2) 포스터 카피

ST: 없음

TT: 호흡기조차 사랑스러운 그녀/ 걸음걸이조차 매력적인 거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어마어마한 로맨스가 온다

ST의 줄거리에서는 등장인물을 ‘Two cancer-afflicted teenagers Hazel and Augustus(십대 암 환자인 헤이즐과 어거스터스)’와 같이 단순히 두 인물이 암 환자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TT의 줄거리에서는 이들의 장애와 질환을 매우 세세하게 표현하여 ‘둘이 합쳐 폐는 1.5개, 다리는 3개’로 번역했다. 이처럼 신체적 장애를 자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표현들도 장애나 장애인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할 수 있다.

4.2 장애인의 정형화된 이미지 강화

줄거리나 포스터 속 장애 인물이 가진 자질이나 특성을 번역할 때는 장애인들을 지칭하는 이름과 수식어구와 같이 인물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제공하여 관객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인물의 정체성을 특정 관점에서 보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리하여 관객들이 인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견해를 제한하고 획일화된 이미지로만 장애인을 인식시킴으로써 관객들이 장애인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강화한다.

<예시13>은 장애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여 번역한 사례이다.

<예시13> <My Name Is Khan>(내 이름은 칸)

(1) 줄거리

ST: Rizwan, a man with Asperger's syndrome, marries Mandira.

TT: 천재 자폐증 남자 칸의 기적 같은 여정이 시작된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지만 천재적인 지적 능력과 어머니로부터 얻게 된,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가진 '칸'.

(2) 포스터 카피

ST: An ordinary man, an extraordinary journey . . . for love.

TT: “나는 대통령을 만나야 합니다!” IQ168의 바보. 미대륙을 뒤흔든 그 남자의 감동 스토리/ 2011년 봄,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ST는 ‘Asperger's syndrome(아스퍼거 증후군)’으로만 남자의 장애를 언급할 뿐 줄거리에서 그 외 그가 가진 다른 특성은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TT에서는 ‘천재 자폐증 남자,’ ‘자폐증을 가지고 있지만 천재적인 지적 능력,’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가진 칸’과 같이 장애와 더불어 그가 가진 천재성과 순수함을 강조하여 번역한다. ST의 카피인 ‘An ordinary man(평범한 남자)’에서도 장애 인물을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임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을 TT는 ‘IQ168의 바보’와 같이 지적 능력을 대비시키는 어휘를 함께 사용해 그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강조한다. 이러한 번역은 자폐 장애인들이 예술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고정관념이나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번역된 텍스트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동시에 재생산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장애인

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대신에 장애인은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몇 가지 이미지로 고착화시킨다.

다음 <예시14>와 <예시15>의 <사랑이 눈뜰 때>와 <업사이드>도 장애인이 가진 장애 외의 다른 특성을 강조하여 번역한 사례이다.

<예시14> <Blind>(사랑이 눈뜰 때)

(1) 줄거리

ST: As part of her community service, Suzanne reads to Bill who is visually-impaired. She is attracted to him, but her feelings for him become stronger when she finds out about her husband's affair.

TT: 사고로 아내와 시력을 잃은 베스트셀러 작가 ‘빌’ 그 이후 집필을 중단하고 더 까칠해진 그에게 만만치 않은 새 봉사자 ‘수잔’이 배정된다. 펜트하우스, 다이아몬드 반지, 상류층 파티, 화려한 삶을 사는 ‘수잔’ [...] 고집 센 그에게 지지 않고 당차게 맞서는 그녀

(2) 포스터 카피

ST: We see what we want to see

TT: 세상에 눈감은 천재작가 현실에 눈을 뜬 여자

ST의 줄거리에서는 작가 Bill을 ‘visually-impaired(시각장애인)’로 간단히 소개한다. 반면, TT에서는 ‘시력을 잃은 베스트셀러 작가 빌,’ ‘더 까칠해진 그,’ ‘고집 센 그’와 같이 장애인 남성의 특성을 추가하여 작가로서의 능력과 성격적인 예민함을 부각시킨다. 포스터 카피에서도 ‘천재작가’와 같이 그가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강조하고 있다.

<예시15> <The Upside>(업사이드)

(1) 줄거리

ST: Phillip is a wealthy quadriplegic who needs a caretaker to help him with his day-to-day routine in his New York penthouse. He decides to hire Dell, a struggling parolee who's trying to reconnect with his ex and his young son.

TT: 떳떳한 가장이 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델’(케빈 하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뉴욕의 주식 부자 ‘필립’(브라이언 크랜스톤)과 면접을 본다. ‘이본’(니콜 키드먼)은 전과자에 무신경한 ‘델’이 못마땅하지만

‘필립’은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델’을 채용한다. 입 떡 벌어지는 주
급에 좋은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푼 ‘델’

(2) 포스터 카피

ST: Based on a true story

TT: 99% 다른 인생의 두 남자/ 1% 인생 친구가 되다!

<예시15> 또한 ST에서 ‘a wealthy quadriplegic(부유한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표현한 것을 TT에서도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뉴욕의 주식 부자 필립’으로 번역하여 장애 인물이 가진 장애와 부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지금까지 장애인을 묘사해온 기존의 방식을 답습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장애를 가졌지만 돈 많은 재벌, 잘나가던 작가, 저명한 교수로 종종 묘사된다. 이는 더욱 다양하게 재현될 수 있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몇 가지 스테레오타입으로 쉽게 분류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은 장애 인물과 비장애 인물의 속성을 대비시킴으로써 더 강화된다.

<예시14>의 경우는 천재작가인 장애 인물에 대비되는 인물인 여성을 ‘펜트 하우스, 다이아몬드 반지, 상류층 파티, 화려한 삶을 사는 수잔,’ ‘고집 센 그에게 지지 않고 당차게 맞서는 그녀’로 표현한다. 더군다나 카피에서는 아예 이 둘을 대비시켜 ‘세상에 눈감은 천재작가’ ‘현실에 눈을 뜬 여자’라고 표현한다.

<예시15> 또한 마찬가지이다. ST에서도 ‘Dell, a struggling parolee who’s trying to reconnect with his ex and his young son(자신의 가족과 재결합하고자 하는 가석방자인 델)’로 표현한 것을 TT에서는 ‘전과자에 무신경한 델’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델,’ ‘떳떳한 가장이 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델’과 같이 문구를 추가하여 부유한 장애인과 대립되는 인물로 배치한다. 그뿐 아니라 포스터 카피에서도 ‘99% 다른 인생의 두 남자’와 같이 장애 인물과 비장애 인물이 대조되게끔 문구를 추가해서 장애 인물이 장애가 없었다면 완전히 누릴 수 있었던 풍요로운 삶과 결핍된 몸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장애가 있는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킨다.

푸코는 특정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다른 특정 집단에게 권리를 주는 ‘분할과 배척’을 배제의 원리로 설명한다(1970: 53). 그가 촘스키와의 대담에서 “질병과 정신이상자에 대한 정의와 정신이상자 분류는 어떤 특정한 수에 이르는 사람들

을 배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2015: 77)”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번역된 텍스트 속에도 푸코의 ‘분할과 배척’을 통한 배제의 전략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 지칭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하여 이들을 비장애인과 다른 존재로 분리한다. 그리고 부자 장애인, 까칠한 장애인과 같이 영화 속 자주 등장하는 정형화된 인물 묘사를 선택함으로써 제한된 범주에서 그들을 재현한다. 즉, 이러한 분리를 통해 장애 인물은 한 명의 장애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으로 분류된 집단 속의 한 명으로 인식된다. 결국 번역된 텍스트는 장애인을 명명하고 수식하는 표현들을 추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을 비장애인과는 다른 집단의 인물로 분류하여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상업영화의 홍보 텍스트 속 장애 인물은 목표 문화가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특정 정서나 태도를 고려하여 번역될 수밖에 없다. 이때, 홍보 텍스트가 가지는 상업성으로 인해 원문은 다시 비장애인 중심적 시선에 의해 틀지어져 장애인은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본 논문은 장애와 장애인을 다룬 영화의 홍보 텍스트인 줄거리와 카피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재현 양상을 분석했다. 그리하여 배제적 시선이 어떻게 번역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화포스터와 줄거리의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타자화의 문제를 푸코의 담론의 배제적 절차에 따라 밝혀보았다.

장애 관련 영화홍보텍스트의 배제적 번역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된 텍스트들은 비장애인의 신체는 정상, 장애인의 신체는 결함을 가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장애인 중심적 시선에 따라 번역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은 제시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는 대상으로만 소비되거나 혹은 서사를 보조하는 인물로만 강조되어 대상화되고 배제된다. 둘째, 번역 텍스트는 장애인의 정체성 그리고 성적 욕구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는 번역 전략을 취한

다. 장애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완전히 삭제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성적 욕구와 관련된 문구 또한 완전히 삭제하거나 비틀어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성과 관련된 담론을 언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자신들의 담론의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배척한다. 셋째, 장애를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장애인을 기존의 스테레오타입과 크게 다르지 않게 표현하여 장애인을 일정한 범주로 구분하여 분리하고 배척하는 번역 전략을 택한다. 이렇게 구분된 장애인의 이미지는 장애인을 개인이 아닌 장애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쉽게 비장애인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비장애인 중심적 시선에서 번역된 텍스트는 원문이 주는 장애인에 대한 담론과 다른 시선의 가능성을 축소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재창조된다. 결국 장애 관련 영화의 홍보 텍스트는 진리예의 의지, 금지, 분할과 배척과 같은 다양한 배제의 전략들을 활용하여 장애와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이라는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 인물을 분리하고 타자화하는 번역 전략을 택한다.

참고문헌

- 강주현, 임영호 (20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5(2): 5-40.
- 김금녀 외 (2011)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우충완 (2019) 「문학적 장애재현과 담론의 한계와 가능성」, 『동화와 번역』 37: 85-119.
- 이상빈 (2020) 「화면해설에서의 객관성과 인물의 심리 감정 표현: 배리어프리영화 <앙리 앙리(Henri Henri)>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21(1): 139-158.
- 이선자 (2007) 「영화 속의 장애인 이미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7: 77-111.
- 이종인 역 (2015) 『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서울: 시대의 창
- [Chomsky, Noam and Michel Foucault (2008) *The Chomsky-Foucault*

- Debate on Human Nature*, New Press].
- 허숙민, 박진화, 김문수 (2012) 「TV 드라마 속 장애인 이미지 분석: 장애 이론 모델과 미디어 프레임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9: 1-22.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New York: Routledge.
- Barnes, Colin (1992) *Disabling Imagery and the Media: An Exploration of the Principles for Media Representations of Disabled People*, Halifax, UK: Ryburn Publishing.
- Dogutas, Ayson (2021)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in Advertisements in Turkey’, *Americ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5(2): 57-72.
- Entman, Robert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oucault, Michel (1970) ‘The Order of Discourse,’ in Robert Young (ed.) *Untying the Text: A Post-structuralist Reader*, Boston, MA: Routledge & Kegan Paul, 48-78.
- Haller, Beth (2010) *Representing Disability in an Ableist World: Essays on Mass Media*, Louisville, KY: Avocado Press.
- Kolotouchkina, Olga, Carmen Llorente-Barroso, María L. García-Guardia, and Juan Pavón (2021) ‘Disability, Sport, and Television: Media Visibility and Representation of Paralympic Games in News Programs’, *Sustainability* 13(1): 256. Available at <https://doi.org/10.3390/su13010256>.
- Mitchell, David T. and Sharon L. Snyder (2011)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Oliver, Michael (1991) ‘Disability and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in Phillip Brown and Richard Scase (eds), *Poor Work: Disadvantage and the Division of Labour*,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32-146.
- Poore, Carol (2003) ‘Who Belongs? Disability and the German Nation in Postwar Literature and Film’, *German Studies Review* 26: 21-42.
- Rauscher, Laurel and Mary McClintock (1996) ‘Ableism Curriculum Design,’

in M. Adams, L. A. Bell, & P. Griffen (eds), *Teaching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New York: Routledge, 198-229.

Whittington-Walsh, Fiona (2002) 'From Freaks to Savants: Disability and Hegemony from *The Hunchback of Notre Dame* (1939) to *Sling Blade* (1997)', *Disability and Society* 17: 695-707. Available at <https://doi.org/10.1080/0968759022000010461>.

Worrell, Tracy (2018) *Disability in the Media: Examining Stigma and Identity*, Lanham: Lexington Books.

Zhang, Lingling and Beth Haller (2013) 'Consuming Image: How Mass Media Impact the Ident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ommunication Quarterly* 61(3): 319-334.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

IRIS센터 <https://iris.peabody.vanderbilt.edu/>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IMDb) www.imdb.com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베이스 www.kofic.or.kr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Abstract]

**Othe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Translation of
the Texts for Film Posters and Synopses**

Shin, Naan · Jung, Byung-E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explores the way in which posters and synopses of films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marginalize the subjects in their translations in order to maximize popularity. Drawing on Michel Foucault's theory of discourse with the procedures of exclusion such as "prohibition," "division and rejection," and "the will to truth," as well as framing theory, this essay analyzes the represen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ilm posters and synopses. Original English posters, synopses, and the Korean-translated counterparts of 15 English-language films screened in Korea were selected for the observation in terms of varia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ranslated texts were represented from an ableist point of view: where non-disabled people's bodies were depicted as normal, disabled people's bodies were shown to be abnormal. The Korean-translated posters negatively objectif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ven delete elements of their conditions and the barriers they experience. Further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represented in the same manner as they have been stereotyped thus far. It is argued that their misrepresentation in Korean-translated film texts serves as part of a corporate marketing strategy for attracting audiences.

- ▶ Key Words: translation, film poster, people with disability, Foucault's system of exclusion, framing, ableism, othering
- ▶ 주제어: 번역, 영화포스터, 장애인, 푸코의 배제적 절차, 프레임, 에이블리즘, 타자화

신나안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hshin012@naver.com

관심분야: 광고번역, 영상번역, 체계기능언어학

정병언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bejung@pusan.ac.kr

관심분야: 현대영미드라마, 공간이론과 비평, 문화연구와 영화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2일